

# 디자인 서적 연대기를 통해 본 디자인사 연구의 단서들

## Historical Clues from the Design Book Chronology

저자 Author: 이호정 Lee Hojung

건국대학교 디자인학과 석사 수료 Completion of MA, Department of Design, Konkuk University

- 서론
- 전시 <디자인 책 — 이 책, 그 책, 저 책>
- 디자인 서적 연대기의 단서들
  -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던 시기의 가시화
  - 디자인 서적 출판의 현황과 디자인 전문 출판사
- 아카이브 대상으로서 디자인 서적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pp.080-067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 080081

### 요약

이 연구는 과거의 디자인 서적을 수집해 연대기적으로 보여줬던 전시 <디자인 책 — 이 책, 그 책, 저 책>(2023)의 자료를 통해 디자인사 서술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76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의 자료인 '디자인 서적 연대기'를 토대로 디자인 서적의 분포에 주목했다. 디자인 서적은 디자인 담론과 지식을 내포하는 자료이자 디자인에 대한 당대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는 매체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디자인 서적 연대기로 디자인사를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를 제안한다. 첫째,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는 시기의 상황을 가시화한다. 한국에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정착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연구서 위주의 출판이 이뤄진 점을 통해 디자인을 개념적으로 정립하려 했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디자인 사전이 2000년을 전후로 빈번하게 출판된 것 또한 사전의 교육적 기능을 활용한 의지였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도입이 시작된 시기 단행본의 흐름도 매체가 급격히 변환되던 국내의 상황을 반영한다. 이렇듯 특정 시기에 특정 도서가 출현한 이유를 추적하는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둘째, 연대기를 디자인 서적의 출판 현황을 드러내는 데이터로서 해석하는 방식이다. 디자인 전문 출판사로 등장한 미진사의 예를 통해 그동안 서사화되지 않았던 주제인 '출판사'를 주목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디자인 서적 연대기가 목록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아카이브 대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했다.

### 핵심어

디자인 서적, 디자인 아카이브, 수집, 디자인 전문 출판사, 디자인 서적 연대기, 디자인사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possibility of narrating design history through the materials of the exhibition "Design Books - This, That, and the Other"(2023), which collected and chronicled design books from the past. Based on the 'Design Book Chronicle', 40 years from 1976 to 2015, the exhibition focuses on the distribution of design books. Design books are a source of design discourse and knowledge and a medium that reflects the views and demands of the time on design. In this sense, this study proposes two clues to design history that can be interpreted from the design book chronology. First, the chronology of design books visualizes the situation when a new concept is introduced. When the concept of design was just beginning to settle in Korea, the publication of research books showed a desire to define design as a term. The frequent publication of design dictionaries around 2000 can be seen as a similar effort to utilize the educational function of dictionaries. The flow of publications around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services also visualizes the situation in Korea where the media was rapidly transforming. In this way, it would be possible to trace the reasons why certain books appeared in a particular period. The second approach is to interpret the chronology as data that reveals the publishing status of design books. Through the example of an unknown company that emerged as a specialized design publisher, this study proposed a way to focus on the 'publisher', a subject that has not been narrativized so far. As a

result,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design book chronicle can function as an archival object rather than just a list.

### Keywords

design books, design archives, collecting, design book publishers, design book chronicles, design history

## 1. 서론

디자인 단행본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다. '미술 수출'과 '포장 디자인'의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아나갔던 시기였다. 디자인 단행본은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생겨남에 따라 발맞추어 등장했다. 한국에서 디자인의 개념이 변모할 때, 디자인 단행본이 다루는 디자인 개념도 변모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디자인 분야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유행하는 책이 변화했고, 디자인 이론서는 꾸준히 출간되는 편이었지만 그것이 주목하는 연구의 대상은 변화했다. 영속적인 매체로 여겨진 책은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담론과 인식이 나타날 때마다 시대에 앞서거나 적응하려는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내 디자인 단행본은 한국에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조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비교적 활력을 가진 매체였던 디자인 단행본은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서 디자이너들에게 추천되어 온 중요한 교재이자 자료였다. "디자인 책을 읽어야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믿음"<sup>1</sup>은 '디자이너가 꼭 읽어야 할 책'과 같은 기획의 기사를 통해서도 자주 생산되었다. 그런 점에서 디자인 책이란, 당대의 디자인 종사자들이 디자인 또는 디자이너에 대해 가졌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출판물로서 디자인이 어떤 의미로 구현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을 습득할 수 있는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2000년을 전후로 새로운 미디어가 전통적 매체들을 대체해 나가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특히 충분한 독자층을 확보하지 못한 이론 서적의 경우 존재감이 소실되어 갔다. 오늘날 디자인 단행본을 내용적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비평 활동을 발견하기 힘든 것 또한 디자인 출판 시장의 현실이다. 디자인 서적에 대한 부분적인 기록과 연구의 부재 역시 디자인 서적을 둘러싼 이론적 불투명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의 계기가 된 전시 <디자인 책—이 책, 그 책, 저 책>(2023)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디자인 단행본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오늘날 더 이상 호명되지 않은 채 잊혀 가는 서적의 존재를 가시화하고자 과거의 '디자인 서적'을 수집해 그 실체를 물리적으로 드러내고 연대기적으로 배열했던 전시였다. 수집 과정에서 발견된 책들은 "자신이 자리한 시대의 질문과 답으로 묶인 책"<sup>2</sup> 존재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시의 수집 범위였던 1976년부터 2015년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출간된 디자인 서적의 경향과 흐름을 개괄적으로 살핀다. 이 연구는 과거의 디자인 서적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한 데이터인 '디자인 서적 연대기'를 통해 책들과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1 이호정·오창섭, '디자인 단행본에 나타난 디자인 이해와 디자이너의 역할: 전시 <디자인 책—이 책, 그 책, 저 책>을 바탕으로',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디자인학회, 2023, p.144

2 wrm, 『디자인 책 — 이 책, 그 책, 저 책』, whatreallymatters, 2023, p.7

082083

맥락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디자이너 서술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메타적인 차원에서 '국내 디자인 단행본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아카이브 대상으로서 특정 시대의 시각을 담아낸 매체이자 사물인 디자인 단행본의 의미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 2. 전시 <디자인 책 — 이 책, 그 책, 저 책>

전시가 사물이나 전시품을 분리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할 때, 전시 <디자인 책 — 이 책, 그 책, 저 책>은 디자인 책을 잠들어 있는 역사인 'фонд(fonds)'으로부터 분리하여 오늘날의 시공간으로 끌고 와 다시 보기를 시도한 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수집 및 선별, 즉 분리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택과 배제가 발생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수집 기준을 정립했다. 전시는 수집 가능한 단행본 중 가장 오래된 단행본이었던 정시화의 『한국의 현대디자인』이 출간된 연도인 1976년부터 시작해 2015년까지, 총 40년의 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 출간된 디자인 분야의 단행본을 대상으로 하되, 집중적으로 변화를 살피기 위해 시각 디자인 관련 단행본을 중심으로 수집 범위를 제한했다. 또한 작품집 성격의 도안집이나 연감, 도록, 정기간행물을 제외하고 미술대학 입시나 실기 연습, 툴 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서 또한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존재를 확인한 단행본 총 725권을 기록했고, 그중 실물로 수집한 609권을 발행된 시간순으로 한 공간에 펼쳐 놓았다.

수집 과정에서 마주한 첫 번째 한계점은 디자인 서적에 대한 기록 부재였다. 디자인 서적에 대한 메타-디자이너 연구 포함해 출판사가 자료를 제공하는 일도 드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디자인 서적을 찾기 위해 정작 가장 의존적으로 활용한 매체는 '알라딘 온라인 서점' 내 '디자인' 카테고리였다. 알라딘 온라인 서점의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도서는 '인터넷 교보문고'와 '예스24 도서'를 통해 보완하기도 했다. 그 외 월간 <디자인>을 비롯한 다른 잡지에서 언급된 디자인 단행본 또한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책이 책을 부르듯, 각 디자인 서적의 참고문헌이나 총서가 발행된 흔적을 따라 또 다른 디자인 서적을 우연히 입수하기도 했다. 비교하거나 대조할 기초 자료의 부재로, 이러한 비연속적 수집 방식은 그 축적 과정에서부터 이미 목록의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불확실한 정보 역시 기록 작업을 지체시킨 요인 중 하나이다. 온라인 서점은 물론이고, 학술논문에서조차 도서의 발행 기록이 제각기 달라 서지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도서의 실물을 구해 직접 그 내용을 확인 및 검수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책의 실물을 입수하더라도 당시 어떤 맥락 속에서 출간된 책이었으며 어떤 영향력을 가진 책이었는지 과거의 자료에 축적된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할수록 더 많은 공백을 발견하게 되는 아이러니 속에서, 도서 목록은 전시에 선행된 아카이브가 아니라, 전시가 열려야 잠정적이거나 완결되는 결과에 가까웠다. 가능한 한 양적으로 많은 도서를 확보해 선보이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해당 전시를 서술할 때 '아카이브'라는 개념을 빌리지 않은 것은 디자인 서적의 목록이 수집의 결과로서 "해석적이기보다 발견적"<sup>3</sup>이었기 때문이다.

3 박정현, 「건축 전시의 시간성」, 『건축, 전시, 큐레이팅』, 마티, 2019, p.50



[그림 1] (디자인 책—이 책, 그 책, 저 책) 전시 전경

수집된 각 단행본은 자료의 단위가 되어 동등한 위계로 배치되었다. 발행 순으로 놓인 단행본은 고유한 분류 기호를 지니고 있었는데, 저자가 규정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에 따라 부여한 기호였다. 전시는 각 디자인 단행본이 강조하는 디자이너의 역할에 따라 세 가지의 분류를 제시했다. ‘연구자로서 디자이너(Designer as Researcher)’, ‘노동자로서 디자이너(Designer as Worker)’, ‘작가로서 디자이너(Designer as Author)’가 바로 그것이다. 출간 연도와 연번, 그리고 역할 코드(DR, DW, DA)를 조합해 만든 분류 기호는 전시장에서 각 자료의 고유한 위치를 만들어 냈으며, 디자인 서적 연대기에서 세 가지 분류는 분야별 단행본의 분포와 추이를 가시화했다. 주지하다시피, 본 전시는 디자인과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읽어내기 위해 디자인 서적을 세 가지 분류로 제시했다. 수집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었던 전시에서는 자료 전체의 흐름과 성격을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기준으로 구획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시의 분류와 체계를 참고하되, 디자인 서적 연대기라는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분포 자체에 주목하며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디자인사적 단서들을 읽어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단서’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디자인사 연구를 촉구하는, 잠재적인, 그러나 불규칙하고 파편적인 주제들이다.

### 3. 디자인 서적 연대기의 단서들

#### 3.1.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던 시기의 가시화

디자인 단행본은 디자인 연구의 도구로서 종종 활용되었다. 서민경은 한국 디자인 담론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담론을 구체적인 언어로 정립하는 과정에서 단행본이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거나 기존 담론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sup>4</sup>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 단행본은 전문 서적으로서 디자인 담론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지식 생산의 장이기도 한 것이다. 이용우는 1990년대에 다양한 문화 비평 실천이 출판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출판이라는 매체가 “어떤 지적 계보학이나 방법론이 유효한지에 대한 발 빠른 감식안을 습득하려는 대중 욕망”<sup>5</sup>에 상응한 결과라고 보았다. 이처럼 출판물은 발행된 시점의 시각과 당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매체이기도 하다. 시대를 구분하는 구획이자 하나의 지표로서 디자인 단행본은 유의미한 자료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디자인 단행본이 보조적인

4 서민경, 「1970년대 이후 한국 디자인 담론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4

5 이용우, 「1990년대 문화연구 출판의 아카이빙」, MMCA 연구포럼 자료집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 국립현대미술관, 2019, p.50

자료로 활용되는 차원을 넘어 ‘디자인 서적 연대기’가 함축하고 있는 특징으로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지시하는 단서는 무엇인지 주목해 보려 한다.



[그림 2] 디자인 서적 연대기가 전시된 모습

먼저,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새로운 개념이나 담론이 국내에 유입되는 시기의 상황을 매우 투명하게 가시화한다. 첫 번째 예로 주목할 만한 시기는 연대기의 초입부인 1970년대와 1980년대다. 연대기에 의하면, 1986년까지는 ‘연구자로서 디자이너’라는 하나의 분류만이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로서 디자이너’라는 분류에는 디자인을 연구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론서나 역사서와 같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서 위주의 집중적인 분포는 디자이너라는 개념이 한국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던 시기에 어떤 종류의 책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때 출간된 책은 디자인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때 출간된 책들의 제목으로는 정시화의 『한국의 현대디자인』(1976)과 『현대디자인연구』(1980), 박대순의 『디자인 용어사전』(1977), 허버트 리이드의 『디자인론』(1979), 권명광·명승수의 『근대 디자인사』(1983), 명승수의 『현대 디자인학의 지평』(1986) 등으로, 총 22권의 책이 목록을 통해 확인된다. 기술한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분포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디자인을 주요한 산업 발전의 전략이자 분야로 개념화하고 이론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명승수는 “무엇보다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의 풍토와 본질을 확실히 파악하고, 그러한 위에서 그 시대의 문화적 내지는 사회적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세”<sup>6</sup>를 강조했는데,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부재하던 시기, 디자인의 본질을 ‘확인’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이 디자인 개념 정립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 연구서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된 특징 중 하나로 특히 ‘사전’ 형태의 단행본이 빈번하게 출간된 현상을 거론할 수 있다. 사전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전은 본질적으로 지식체계를 압축적으로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출판물이다. 김은영·안병학은 “디자인 이론서가 부족하고 인터넷 검색도 원활하지 않던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다분야전문어사전으로서 편찬된 디자인사전은 사전의 참조 기능과 교육 기능”<sup>7</sup>을 수행했다고 설명하며, 당시 디자인 사전 출판의 교육적 의의를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디자인 사전이 디자인에 관한 종합적인 개념을 분류하고 범주화했다는 점이다. 개념들이 변화하자 사전도 개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조영제, 권명광, 안상수, 이순종이 기획하고 안그라픽스에서 출간된 『디자인 사전』의 초판은 1994년에 나왔으나, “넓어지는 디자인의 영역에 따라 감성

6 명승수, 『현대 디자인학의 지평』, 디자인하우스, 1986, p.40

7 김은영·안병학, 「한국디자인사전의 편찬 유형과 대상 영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2권 3호, 한국디자인학회, 2019, pp.155-165, p.163

공학, 인터페이스, 시각 심리, 웹 디자인 등의 내용이 보강<sup>8</sup> 되어 2000년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그러나 디자인 사전은 그러한 변화를 완벽히 따라잡지는 못했다. 2000년대 초 이후로 디자인 사전은 모습을 감추는데, 1990년대 말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며 정보 습득의 매체로서 사전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 이뤄진 디자인 사전 출판의 함의는, 디자인이 제대로 된 학문이자 산업 분야로 자리 잡지 못했던 1970년대를 거쳐 인터넷이 도래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전공자라면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언어적으로 습득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연도	제목	저자	출판사	페이지	가격	비고
1970	디자인의 이해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의 미래
1971	디자인의 원리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의 미래
1972	디자인의 방법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의 미래
1973	디자인의 역사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미래
1974	디자인의 미래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미래,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역사
1975	디자인의 원리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의 미래
1976	디자인의 방법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의 미래
1977	디자인의 역사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미래
1978	디자인의 미래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미래,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역사
1979	디자인의 원리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의 미래
1980	디자인의 방법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의 미래
1981	디자인의 역사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미래
1982	디자인의 미래	김기현	디자인사상	100	1,000원	디자인의 미래, 디자인의 원리, 디자인의 방법, 디자인의 역사
1983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을 위한 디자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원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방법,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역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미래
1984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원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방법,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역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미래
1985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원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방법,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역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미래
1986	바우하우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의 원리, 바우하우스의 방법, 바우하우스의 역사, 바우하우스의 미래
1987	인간과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과 디자인, 인간과 디자인의 원리, 인간과 디자인의 방법, 인간과 디자인의 역사, 인간과 디자인의 미래
1988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을 위한 디자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원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방법,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역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미래
1989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원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방법,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역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미래
1990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원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방법,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역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미래
1991	바우하우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의 원리, 바우하우스의 방법, 바우하우스의 역사, 바우하우스의 미래
1992	인간과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과 디자인, 인간과 디자인의 원리, 인간과 디자인의 방법, 인간과 디자인의 역사, 인간과 디자인의 미래
1993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을 위한 디자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원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방법,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역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미래
1994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원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방법,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역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미래
1995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원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방법,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역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미래
1996	바우하우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의 원리, 바우하우스의 방법, 바우하우스의 역사, 바우하우스의 미래
1997	인간과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과 디자인, 인간과 디자인의 원리, 인간과 디자인의 방법, 인간과 디자인의 역사, 인간과 디자인의 미래
1998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을 위한 디자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원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방법,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역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미래
1999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원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방법,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역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미래
2000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원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방법,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역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미래
2001	바우하우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의 원리, 바우하우스의 방법, 바우하우스의 역사, 바우하우스의 미래
2002	인간과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과 디자인, 인간과 디자인의 원리, 인간과 디자인의 방법, 인간과 디자인의 역사, 인간과 디자인의 미래
2003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을 위한 디자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원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방법,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역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미래
2004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원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방법,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역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미래
2005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원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방법,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역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미래
2006	바우하우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의 원리, 바우하우스의 방법, 바우하우스의 역사, 바우하우스의 미래
2007	인간과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과 디자인, 인간과 디자인의 원리, 인간과 디자인의 방법, 인간과 디자인의 역사, 인간과 디자인의 미래
2008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을 위한 디자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원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방법,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역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미래
2009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원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방법,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역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미래
2010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원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방법,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역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미래
2011	바우하우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의 원리, 바우하우스의 방법, 바우하우스의 역사, 바우하우스의 미래
2012	인간과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과 디자인, 인간과 디자인의 원리, 인간과 디자인의 방법, 인간과 디자인의 역사, 인간과 디자인의 미래
2013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을 위한 디자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원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방법,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역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미래
2014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원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방법,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역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미래
2015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원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방법,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역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미래
2016	바우하우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의 원리, 바우하우스의 방법, 바우하우스의 역사, 바우하우스의 미래
2017	인간과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과 디자인, 인간과 디자인의 원리, 인간과 디자인의 방법, 인간과 디자인의 역사, 인간과 디자인의 미래
2018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을 위한 디자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원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방법,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역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미래
2019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원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방법,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역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미래
2020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원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방법,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역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미래
2021	바우하우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바우하우스, 바우하우스의 원리, 바우하우스의 방법, 바우하우스의 역사, 바우하우스의 미래
2022	인간과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과 디자인, 인간과 디자인의 원리, 인간과 디자인의 방법, 인간과 디자인의 역사, 인간과 디자인의 미래
2023	인간을 위한 디자인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인간을 위한 디자인,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원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방법,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역사, 인간을 위한 디자인의 미래
2024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원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방법,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역사, 현대 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의 미래
2025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미진사	미진사	100	1,000원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원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방법,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역사, 현대 디자인의 현실과 이상의 미래

[그림 3] 디자인 서적 연대기 데이터의 일부.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되었던 시기에 그와 관련한 주제로 출간된 책들(파란색 하이라이트)은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또 하나의 분포는 바로 2000년을 전후로 ‘디지털’을 강하게 의식하며 매체와 기술을 주요한 주제로 다루는 책들이다. [그림 3] 1994년, 국내에 KT 상업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002년에는 국내 인터넷 가입자 수가 1천만을 돌파했다. 도약적인 시기를 지나는 동안 디자인계에서도 『전자편집디자인』(1996), 『디지털 이미지 크리에이션』(1996), 『멀티미디어 교과서』(1998), 『방송 그래픽 디자인』(2001), 『웹디자인 교과서』(2002), 『디지털 타이포그래피』(2003)와 같은 책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서적의 분포는 인터넷이 도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디자인계에 디지털과 관련한 담론이 급속히 유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매체와 기술의 변화로 인해 실무자로서 디자이너가 준비해야 할 역량에도 극명한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에 출간된 『디지털 시대의 정보 디자인』에서 ‘혼돈을 맞이하며’라는 서문의 제목에서도 그렇듯, 저자는 컴퓨터 기술의 폭발적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기도 한다. 같은 해에 발행된 이 책의 신문 광고에서는 해당 도서를 “디자이너, 기획자, 프로그래머 등 크리에이티브 분야 종사자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처럼 비즈니스와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바이블”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림 4]

인터넷의 영향력이 일군의 주제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1998년에 나온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든다』의 목차를 살펴보면, 포트폴리오의 제작 도구가 모두 인쇄물 기반이며 촬영과 필름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틀이 보편화되기 직전의 시기에도 디자이너들의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제작 방식은 아직 슬라이드와

# 086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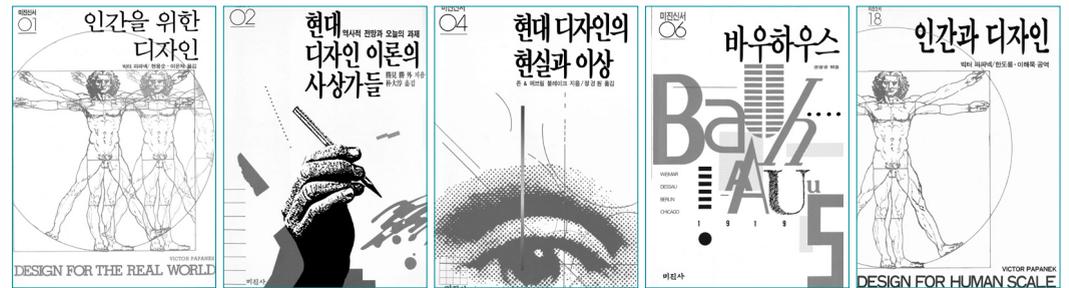
바인더 북 형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UPDATED,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든다』를 보면 목차의 구성이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매개로 온라인 홍보를 위한 방법들로 모두 바뀌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매체가 변환되는 상황 속에서 진동하는 디자인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사례다. 이렇듯,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특정 도서가 특정 시기에 출몰한 이유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베이스이자, 디자인계의 화두나 담론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림 4] 1999년 10월 12일, 《한겨레》 신문, 23면

## 3.2. 디자인 서적 출판의 현황과 디자인 전문 출판사

특정 시기의 분포를 추적하는 용도 외에도,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당대의 출판 현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다. 40년간 가장 많은 디자인 서적을 출간한 출판사는 안그라픽스(148권)였으며, 디자인하우스(44권), 미진사(44권), 비즈앤비즈(31권), 흥디자인(26권)이 그 뒤를 이었다. 그중 미진사가 압도적인 비율로 디자인 서적 출판을 선도했던 2000년 이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미진신서의 표지. 차례로 『인간을 위한 디자인』(1983), 『현대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1983), 『현대디자인의 현실과 이상』(1984), 『바우하우스』(1984), 『인간과 디자인』(1986).

1973년 디자인 전문 출판사로 등장했던 미진사는 일찍이 1970년대부터 다른 출판사들보다도 디자인 이론서 출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다. 1983년부터 출간한 ‘미진신서’는

미진사를 디자인 전문 출판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한 총서였다.<sup>9</sup> 미진신서는 『인간을 위한 디자인』(1983), 『현대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1983), 『현대디자인의 현실과 이상』(1984), 『바우하우스』(1984) 등 굵직한 디자인 이론서들이 포함된 총서 시리즈이다. 당시 미진사의 김현표 사장은 디자인 이론 서적의 필요를 절감하면서도 제작자로서 많은 한계점에 봉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론 서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디자인 단행본 시장에 대해 김현표 사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기초 또는 전공기술을 익히는데 참고가 되는 실기서적은 그런대로 나와 있는 데 비해 디자인을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논급한 연구논집이나 학술서적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 이처럼 이론서적이 빈약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디자인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을 축적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론서적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디자인 부문에서도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출판사 측에서도 출혈을 무릅쓰고 ‘책다운 책’을 내놓기에는 경영상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sup>10</sup>



[그림 6] 정혜옥, 『책도 작품처럼 만들면 늘 살아 움직인다—디자인 관련도서 등 미술출판의 처녀림 일귀 온 ‘미진사’』, 출판저널, 1994, p.14

- 9 강현주,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황부용 디자인 활동의 배경과 특징』,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7권 2호, 한국디자인학회, 2024, p.462
- 10 김현표, 『디자이너와 전문 서적 — 디자인 서적 출판인의 입장에서』, 《월간디자인》, 1983, p.20

# 088089

흥미로운 점은 미진사가 “디자인 발전에 책임의 한몫을 맡고 있는 출판인”<sup>11</sup>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출판문화는 “필자, 출판인, 독자의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도 말한다. 실제로 미진사의 사무실은 흥대 앞에 위치해 “미대 교수들의 사랑방”<sup>12</sup>이었다는 기록을 보면, 디자인 출판 업계에서 미진사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림 6]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집중된 미진사의 출판 계보는 바로 이러한 증언과 같이 읽을 때 디자인 전문 출판사라는 새로운 생산 주체를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일반적으로 책은 저자와 독자라는 두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서 이분법적인 구도로 이해되어 왔지만, 디자인 서적의 경우 디자인 전문 출판사라는 행위자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 서적의 저자와 독자는 디자인 전공자인 경우가 보편적이다. 미진사가 당대의 디자인을 이해하고 대하는 태도는 어땠는가, 그리고 그들이 저자이자 독자인 디자이너들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했는가 등의 질문으로 접근한다면 미진사는 출판을 통해 1980년대에 디자인 서적이라는 ‘판’을 구성한 역사적 주체일 수 있다. 이처럼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그동안 서사화되지 않았던 디자인사의 주체를 발견하고 주목할 계기를 만드는 데이터베이스로 작동할 수 있다.

## 4. 아카이브 대상으로서 디자인 서적

지금까지 살펴본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그 자체만으로 ‘디자인 아카이브’라 규명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책은 작품이라기보다 기록문서에 가깝고, 디자인 과정에서 발견될 법한 부산물이나 문서류에 가깝다. 김상규는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차이에 대해 “도서관 사서에게 있어 각 도서의 실체는 그 자체로 종료된 것이지만 아키비스트에게 기록물의 실체는 문서들 원문의 내부에 존재한다.”<sup>13</sup>며 작업자가 자료를 바라보는 방식을 두고 두 장소를 구별했다. 정보적 가치가 두드러지는 자료로서 과거의 디자인 서적이 놓이기에 아카이브보다 도서관이 더 적절할 수 있고, 그마저도 유통에서 철회되어 이제는 망각된 자료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디자인 아카이브의 대상이 주로 기업과 같은 생산 주체의 생산물을 위주로 다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카이브 대상으로서 디자인 서적의 좌표는 매우 불분명하다.

또한 주제가 없는 도서 목록은 아카이브라고 할 수 없다.<sup>14</sup> 스펀 스피커는 “‘물질의 현존’ 외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면, 주체-행위자의 돌아보고 순서를 매기고 과거를 창조하고 초점을 맞추는 행위가 없다면”<sup>15</sup> 무작위적인 수집은 단편적인 소음과 같은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저절로 의미화되는 아카이브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가가 아카이브 작업에 착수해 의미를 읽어내기까지 아카이브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sup>16</sup>

디자인 서적 연대기가 들려주는 단서들을 통해 주제를 떠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 11 김현표, (1983), 같은 쪽
- 12 정혜옥, 『“책도 작품처럼 만들면 늘 살아 움직인다—디자인 관련도서 등 미술출판의 처녀림 일귀 온 ‘미진사’』, 출판저널, 1994, p.14
- 13 김상규, 『디자인 아카이브 연구: 동시대적 개념과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67
- 14 “아카이브는 주제가 있어야 한다. 역사 그 자체가 주제가 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모든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나 모든 기록을 저장할 데이터베이스(DB)는 없으므로, 역사를 어떤 기준(사관)에 따라 재단하고, 정렬해야 한다.” 김종균, 『초국가적 디자인사 연구와 아카이브: 국립디자인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40호, 한국예술연구소, 2023, pp.299-321, p.302
- 15 스펀 스피커, 『빅 아카이브』, 이재영, 홍디자인, 2013, p.65
- 16 아를레트 파르주, 『아카이브 취향』, 김경아, 문학고지성사, 2020, pp.116-117

# 090091

있다. 디자인 서적을 디자인사에서 서술할 만한 하나의 모델로 설정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책들 사이의 긴장감 있는 관계를 포착하고 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책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해 모을 때 책 간의 관계는 저절로 생기게 마련이다. 과거의 디자인 서적에는 과거 디자이너들의 목소리와 그들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담겨 있다. 그런 점에서 책은 매우 발언적이다. 디자인 서적을 공식 역사에 담기지 않은 당대의 기록이자 발언으로 이해한다면, 디자인 서적은 원문의 내부에 실체가 담긴 매체로서 디자인사의 맥락에서도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몇 가지 주제들은 디자인 서적 연대기가 가리키는 단서의 일부를 열어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디자인사적 문맥을 거칠게 그려보려 시도했다. 지면상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 2000년대 이후로도 공공디자인, 브랜딩, 유학과 취업, 업계의 실무론 등 당대 디자인계의 풍경을 재현하고 있는 화두들이 과도기적 시간 속에서 책의 연대기 위로 그려지고 있음을 포착한다. 각 주제는 단행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사회문화적 연구를 동반해 더 깊이 있게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연구의 시대적 범위를 전후한 1976년 이전과 2015년 이후 시기의 단행본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방대한 자료는 그렇게 계속해서 자료의 결여를 상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의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서적 연대기에서 특정한 양상과 특정한 역사적 시선을 발견하는 일, 즉 연대기가 지시하는 다양한 단서들을 연결하고 서술하는 작업이야말로 디자인 서적 연대기가 ‘아카이브’로 나아가는 방법이자 디자인 서적을 존재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

17 김상규는 “디자인 아카이빙이 디자인사 연구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며 “디자인 아카이브에서 ‘기록’은 디자인연구에 의해 수집되고 주제별로 재분류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디자인 서적 연대기는 디자인사 연구의 토대로서 기능할 때 디자인 아카이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을 참고: 김상규, 「동시대적 디자인 아카이빙의 개념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1권 4호, 한국디자인학회, 2018, pp.97-108

## 참고문헌

### 단행본

- 명승수, (1986), 『현대 디자인학의 지평』, 디자인하우스
- 박정현, (2019), 「건축 전시의 시간성」, 『건축, 전시, 큐레이팅』, 마티
- 스펀 스피커, (2013), 『빅 아카이브』, 이재영, 홍디자인
- 아를레트 파르주, (2020), 『아카이브 취향』, 김정아, 문학과지성사
- MMCA 연구포럼 자료집, (2019), 『부재하는 아카이브: 디자인, 건축, 시각문화』, 국립현대미술관
- wrm, (2023), 『디자인 책 — 이 책, 그 책, 저 책』, whatreallymatters

### 논문

- 강현주, (2024),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황부용 디자인 활동의 배경과 특징」,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7권 2호, 한국디자인학회
- 김상규, (2018), 「동시대적 디자인 아카이빙의 개념 연구」,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1권 4호, 한국디자인학회
- 김상규, (2018), 「디자인 아카이브 연구: 동시대적 개념과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안병학, (2019), 「한국디자인사전의 편찬 유형과 대상 영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2권 3호, 한국디자인학회
- 김종균, (2023), 「초국가적 디자인사 연구와 아카이브: 국립디자인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40호, 한국예술연구소
- 서민경, (2010), 「1970년대 이후 한국 디자인 담론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정·오창섭, (2023), 「디자인 단행본에 나타난 디자인 이해와 디자이너의 역할: 전시 〈디자인 책—이 책, 그 책, 저 책〉을 바탕으로」,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디자인학회

### 간행물

- 김현표, (1983), 「디자이너와 전문 서적—디자인 서적 출판인의 입장에서」, 《월간디자인》, p.20
- 정혜옥, (1994), 「책도 작품처럼 만들면 늘 살아 움직인다—디자인 관련도서 등 미술출판의 처녀림 일귀 온 ‘미진사」, 출판저널, p.14
- 안그래픽스, 「디지털 시대의 정보 디자인」, 1999년 10월 12일, 《한겨레》 신문, 23면

### 웹사이트

- 디자인 사전, <https://agbook.co.kr/books/the-dictionary-of-contemporary-design> (2024.12.20.)